「 제 2468 호 」

# 들빛

2025 사목교서 / ' 은총의 해 '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로마 5,17)

평창 성당
설 립 일. 1965. 10. 7.
주보성인. 로사리오의 모후

**2024년 12월 15일**

##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제1독서**
스바 3,14-18ㄱ

**제2독서**
필리 4,4-7

**복 음**
루카 3,10-18

들빛 바로가기
www.wjcatholic.or.kr

### 화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발행 천주교 원주교구 발행인 조규만 전화 033-765-4227 팩스 033-765-4223 주소 원주시 원일로 28(인동) E-mail. wjhongbo@catholic.or.kr

#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배 도 하** 베네딕토 신부 / 학성동 본당 주임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세월의 한 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마디 지친 나를 안아 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 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고 묻는 군중을 향해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알곡이 되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삶이 힘겹다고 말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중들이 요한 세례자에게 던졌던 물음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누고 격려해 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삶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부터 해마다 대림 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주님의 은총안에서 익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야 하고 익어가면 익어 갈수록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말고 나눔의 삶을 통해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며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살아가는 것이 고맙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 단풍처럼 복음으로 물들어 가는 신앙 공동체

평창 성당

평창 지역은 계곡이 깊고 산이 많은 지역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김희달과 손동이가 유배된 곳이다. 1866년 병인박해 전후에는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 대표적인 신앙 공동체로는 계촌 굴아우 지역의 심능석 스테파노, 이유일 안토니오, 유 베드로가 살았으며, 평창은 한국 교회의 첫 영세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본향이기도 하다.

1882년에는 5개의 공소가 세워졌으며, 1888년 풍수원성당이 설립될 무렵에는 8개의 공소에 420명(도내 전체 649명중)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후 도내에서 네 번째로 대화성당이 1931년 5월에 설립되어 평창 지역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1965년 10월 7일 평창성당이 설립되면서, 대화성당은 공소로 전환되었고, 함 브렌다노(Brendan Murray) 신부가 초대 신부로 부임했으며, 현재는 19대 신부인 함형식 바오로 신부가 사목하고 있다. 본당 출신 사제로는 1993년 위종우 요셉 신부, 1995년 고정배 요셉 신부, 2008년 김정하 야누아리오 신부가 서품되었다.

1982년 3월 개원한 소화어린이집은 신앙의 못자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7개반 65명 아이들의 재잘대는 밝은 목소리가 성당 주변에 울려 퍼진다.

평창 성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건물이 낡아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으나, 2010년 신축에 버금가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재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탈바꿈하였다. 성전은 엘리사벳 씨튼 성녀의 유해가 안치된 무덤 제대를 중심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상이 정면에 걸려 있다. 독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세 개의 못이 남아 있으며, 감실은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신자들이 성체조배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성전 내부의 측면 벽에는 십자가의 길 14처가 조각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은 신구약의 주요 장면을 상징하는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었다. 성전 입구의 장미창에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비둘기를 중심으로 열두 마리의 어린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비둘기는 성령을, 어린양은 복음을 전할 열두 사도를 상징한다. 성전 뒷편에는 유아방이, 2층에는 성가대석이 마련되어 있어 신자들이 편안하게 미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노산 아래 천여 평의 부지에 자리한 성당 외부 또한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성당 입구에 세워진 예수성심상은 성당을 찾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일깨워 주고, 성모동산의 마리아 상과 마리아 베르나데트 성녀상은 루르드 성모 발현지의 동굴을 형상화해 기적의 샘물이 흐르는 기도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약 160명이며, 교구장 사목교서 '자비의 해'를 맞아 미사 참여와 기도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올해는 성당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부지의 폐건물을 철거하여 정비를 마쳤다. 사도회, 성모회, 꾸리아, 레지오, 연령회, 양업회 등 다양한 사도직 단체들이 신앙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은 내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향해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성당은 성모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며,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이곳에서 신자들은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느님의 참 일꾼이 되기를 다짐한다.

▲ 제대

▲ 감실

▲ 스테인드글라스-장미창

▲ 성모동산

#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 찬미 예수님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40년째 되는 ‘자선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특히, 사순절 동안 세 가지를 훈련합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단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훈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재의 수요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마태 6,3).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6,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6,16).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취업과 실업,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 ……,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나쁠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나쁠 때 고독해집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싶은 이웃도 있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은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난 체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로마 2,8).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을,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잠언 8,13).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베푸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 25,40.46).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아마도 내가 거만하거나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 것을 기꺼이 그들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힘, 더 나아가 나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큰 시련을 겪는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경사를 맞이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자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제물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9,13).

희생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희생은 자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3-4). 자신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마저 내어 주는 자선 또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 소련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희생”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을 위하여, 혹은 어떤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에게서 최소한 경미한 정도로도 느끼지 않는 한, 그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중단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다”(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봉인된 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이 살 만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오늘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피땀, 희생이 그 밑받침에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하고 불안하다면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은 원죄를 씻어 냅니다. 자선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베풂은 이기적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절대적 희망이십니다. 코로나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희망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희망이신 하느님과 함께,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작은 희망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눕시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시다.

2024년 12월 15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 규 만 주교

# 견진성사를 받으며

**김 재 영** 플로라 / 봉산동 본당

지난 2024년 11월 10일 10시 30분은 나의 생애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봉산동 성당에서 61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은총을 받아 견진성사를 받는 날이었다. 신앙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견진성사를 준비하였다. 주임 신부님은 견진교리를 시작하면서 견진은 내 신앙생활에 한발 더 나가는 성숙의 성사라고 말씀하셨다. 견진교리를 받으며 많은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우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어 나갈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되었다. 삼위일체의 신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생활안에서 성화되고 성모님처럼 일상을 신앙 안에 살아가는 기도에 대해 배웠다. 또한 고백성사를 통해 세례 때 받은 은총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

바쁜 일상 안에서 여러 신자들과 함께 부대끼는 피곤함을 감수하고 시작한 견진성사는 나에게 있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인하고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견진성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여, 나를 채워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으며, 더불어 함께 견진성사를 받았던 형제·자매들과 나눈 기도와 축복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견진성사가 끝나고 성당에서 기념으로 주신 성령칠은 선물은 경외심이었다. 이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경외심(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뇌였다. 나는 경외심을 삶에 녹여내는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를 하느님께 내맡기고 그분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하게 되었고, 이런 다짐을 갖게 된 후 매일 집을 나서기 전 책상 위 액자 속에 있는 경외심을 보며 나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

나에게 견진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탈출 20,20)

– 대림 시기 주요 복음 묵상서 –

**마리아는 길을 떠나** /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품은 하느님을 나르는 사람이다. /

지은이 : 에르메스 론키
옮긴이 : 박미애 수녀
124쪽 / 바오로딸 / 10,000원

이 책은 '주님 탄생 예고'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등 **대림 시기의 주요 복음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표현들로 풀어낸 묵상서**입니다. 저자는 삶의 격랑 속에서도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가 누리는 평온한 기쁨을 이야기하며, 참된 희망은 '근원적으로 승자勝者인 하느님께 미래를 거는 것'이기에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림 시기를 사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는 이 책은,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품은 하느님을 나르는 사람이 되자고, 보물 같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자고 초대합니다.

닻을 제대로 내린 배는 출렁이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법입니다. 온갖 세파 가운데서도 **"영혼의 닻"**(히브 6,19)이신 주님과 단단히 이어져 있고 싶은 이들에게, 「마리아는 길을 떠나」는 튼튼한 '희망의 닻줄'이 될 것입니다.

## 교구장 동정

**12월 15일(주일)** 평협 정기총회(기도학교)
**17일(화)** 진광학교 법인 이사회
**18일(수)** 관설동 성당 사제관 축복식
**20일(금)** 제천지구 합동 대림특강 및 미사

## 축하드립니다

수품일 **12월 15일(주일)** 김태원, 신현만 신부
**17일(화)** 박양업, 방명준 신부

## 2025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 2024년 12월 기획피정 | | 12월 20일(금)~22일(주일) 이성효 리노 주교(수원교구) | |
|---|---|---|---|
| 날짜 | 강사 | 날짜 | 강사 |
| 1월 17일(금)~19일(주일) | 신우식 토마스 신부님, 원주교구 | 7월 18일(금)~20일(주일) | 신호철 비오 주교님, 부산교구 |
| 2월 14일(금)~16일(주일) |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 전주교구 | 8월 22일(금)~24일(주일) |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님, 서울대교구 |
| 3월 14일(금)~16일(주일) | 서상범 티토 주교님, 군종교구 | 9월 19일(금)~21일(주일) | 배영호 베드로 신부님, 수원교구 |
| 4월 17일(목)~20일(주일) | 성주간 피정(3박4일), 기도학교 | 10월17일(금)~18일(주일)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마산교구 |
| 5월 16일(금)~18일(주일) | 전헌호 실베스테르 신부님, 대구대교구 | 11월14일(금)~16일(주일) | 신현만 시몬 신부님, 원주교구 |
| 6월 20일(금)~22일(주일) |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 원주교구 | 12월19일(금)~21일(주일)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

## 교구 알림

### 성서사십주간
비대면 : 12월 17일(화) 가톨릭센터(Zoom), 20시
대면 : 12월 17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18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19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 예비신학생 월모임
때 : 12월 22일(주일) 11시 /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 미사·피정·연수

### 성서부 탈출기 연수
때,곳 : 12월 15일(주일) 10시,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 미사
때 : 12월 15일(주일) 18시30분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 가톨릭 의사회 미사
때 : 12월 16일(월) 19시
곳 : 가톨릭 원주도서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 가톨릭 법조인회 월례미사
때 : 12월 18일(수) 18시30분~19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 가톨릭 간호사회 월례미사
때 : 12월 19일(목) 18시~19시,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 로사리오회
때 : 12월 19일(목) 14시,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010-5360-6327

### 평협 월례미사 및 회의
때 : 12월 20일(금) 18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 가톨릭 여교사회 월례미사
때 : 12월 20일(금) 19시, 곳 : 양업사제관
대상 : 초.중.고 가톨릭신자 여교사
문의 : 심태연 엘리사벳 010-8192-1213

### 가톨릭 원주도서관 하반기 봉사자 미사와 만남
때 : 12월 21일(토) 10시
곳 : 교구청 경당, 가톨릭 원주도서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 사회복지 성탄맞이 나눔행사
때 : 12월 21일(토) 9시~13시
곳 : 최양업토마스의 집
문의 : 사회사목 033-731-4557

### 원주 가톨릭병원 월례미사
때 : 12월 21일(토)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 북한이탈주민 송년회
때 : 12월 22일(주일) 13시~16시 /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 원주 M.B.W. 공동체 수련회 '우리시대의 영성' 참가자 모집
때 : 2025년 2월 7일(금) 17시~9일(주일) 16시
곳 : 용소막성당 피정의 집
참가비 : 15만원(2박3일) / 인원 : 40명
신청 : jbcho01@naver.com, F.033-760-8861
문의 : 010-6850-3115

### 바오로딸 젊은이 피정
때 : 2025년 1월 10일(금)~12일(주일)
곳 : 여주 사도의 모후 집
대상 : 33세 이하 미혼 여성
피정비 : 3만원 / 문의 : 010-2609-0197


**3H 지압침대 원주무실센터**
신순남(세라피나), 강일성(요셉)
목, 척추교정 및 허리디스크에 좋은 지압침대
T.033-735-3737,010-8994-3775

**연세프라임안과**
이석준(미카엘), 박명호
각종 안과 수술 전문
T.033-731-2753

**연세안과**
현재헌(라파엘), 송정순(마리안나)
T.033-731-0505

**상지식자재 할인마트**
이희(마티아), 김향수(엘리사벳)
최저가판매 및 납품
일반고객 환영
T.033-733-5400(우산동)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14희년이탈리아(대한항공) 455만원
3/9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3/1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1 산티아고 도보순례 499만원
T.02-2281-9070 / www.cttour.org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위 대장내시경, 간·유방·갑상선 초음파
고혈압·당뇨·만성기침·만성피로 증후군
8시 진료시작(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 86)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우명숙(글라라), 김길영(마르티노)
T.033-647-6063(강릉 임당동)
033-531-7887(동해 묵호동)

**한일중기 볼보건설기계**
송철희(대건안드레아), 김명옥(미리암)
볼보 중장비 정비/부품
T.043-645-0308, 010-8790-4800
충북 제천시 왕암동 998

**㈜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막시밀리안노콜베), 황병훈(유스토)
국제공인시험기관
분야 : 폐기물 (PCBs), 수질, 생태독성,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건축자재방출시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T.033-744-2817 / www.alexlab.co.kr

**세신종합주방 할인마트**
김종운(도마)
업소용 주방기구설비 제작전문
가정용 그릇, 관공서, 닥트
T.033-734-6060, 010-8793-5174
원주시 천사로 258(학성동)

## 2024년 교황님 기도 지향

**12월 / 희망의 순례자들**

이번 희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알아뵙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합시다.

## 성소모임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때 : 12월 21일(토) 14시
곳 :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 033-3800-1579

## 채용 ·모집·기타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과 안내**

문의 :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2276-6337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가톨릭 원주도서관 봉사자모집**

인원 : 1~2명 / 시간 : 매주 금요일 9시30분~12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향심기도 모임 안내**

때 : 매주 목요일 14시~16시 / 곳 : 봉산동성당
대상 : 향심기도 교육을 받은 분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 원주교구 향심기도회 010-7278-989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살림터 직원(조리원) 모집"**

근무시간: 월~목(09:00~13:00), 금(09:00~14:30)
출근일 : 2025년 1월 2일(목)
채용문의 : 살림터 043-653-7522

**노비따스음악중고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2025학년도 노비따스음악중고 입학생 모집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상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전입생
전액 무상교육(수업료·기숙사비 전액 면제)
음악 중점 교육 과정 운영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novitas-s.goegp.kr) 참조

### 들빛상담실 이용 안내

일시 : 화, 수, 목, 금/ 14시~17시
장소 : 원주교구청 가톨릭센터 100호
지도신부 : 신현만 시몬 신부
문의 : 010-5738-2032(문자예약 가능)

## 관설동 성당 사제관 축복식

- 일시 : 12월 18일(수) 11시30분
- 장소 : 관설동 성당

###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아픈 지구를 살리는 일, 함께해 주세요.

노숙인자활시설 「최양업토마스의집·십시일반」은 건강보험과 함께 **투명 PET병** 모으기 환경보호 캠페인 "다시 하늘반창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투명 PET병의 수거는 입소 **노숙인이 직업훈련**으로 참여합니다. 지구를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참여 방법과 문의 ***

1. 투명 PET병 모으기 참여
2. 노숙인 수거활동비 후원하기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를 활용해 주세요.
일시후원 계좌 : 농협 307125-55-000828
■ http://wjhc.or.kr ■ 033-746-1206 ■ wjhomelss@naver.com

RE: 다시 하늘반창고 GUIDE SITE

본 캠페인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친환경 캠페인 "슬기로운 지구생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정부 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25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품) 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1. 25년도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간소화서비스 제공동의서"를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2. 25년도분을 26년도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변경 요청하시는 경우에도 정부 세법 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납입 처리된 25년도분은 25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정정이 가능)
3. 본당에서는 25년도분 기부금 영수증의 수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2025년 '들빛' 주보 상호광고 모집

광고기간 : 2025년 1월~12월(1년. 격주게재)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접수
(www.wjcatholic.or.kr→자료실→교구자료실)
메일 : wjhongbo@catholic.or.kr
문의 : 교구청 홍보부 033-765-4227

### 축복된 성물의 거래에 대한 주의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회가 금하는 일입니다.(교회법 제1171조 참조 :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축복된 성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사사로이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성물들을 **문화영성연구소(배론성지, 043-646-452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미소플란트치과**
국태성(안토니오), 강로사(로사)
서울대 치과병원 전문의 진료
임플란트, 충치치료, 잇몸치료
T.043-651-2275
제천 용두천로 86(보령약국 건물) 3층

**영웅앵글**
함정선(말가리다) 조삼천(바오로)
조립식 앵글선반/ 창고 공장 파렛트랙 설치
T.033-742-9493
원주시 평원로 106(학성동 331-3)

**(주)강원도로마이트광산**
김성배(프란치스코), 정찬아(글라라)
고토비료, 골재, 부순모래, 조경석
T.033-762-5252~5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전두표(바오로), 여성자(로사)
등기, 민사, 호적, 법률상담
T.033-344-3888, 2888 (횡성군청 앞)

**파리바게뜨 무실세영점**
단팥빵, 크림빵, 케잌 등 베이커리 일체.
단체주문 환영
장금자(데레사)
T.033-745-8230, 010-5225-9861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안내**
2/24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라파엘 특선 동반자 100만원 할인
3/09 포르투갈 일주 9일 349만원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535만원
4/22 이태리(희년 전대사) 11일 465만원
대표 : 유재구 요한 02-778-8565

**최경훈 내과(심장클리닉)**
최경훈(마르코), 한숙자(헬레나)
고혈압 · 심혈관 질환 전문
대학병원급 심초음파 전문 장비 보유
24시간, 72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동혈압, 동맥경화검사
T. 033-742-7400 원주세브란스병원 앞

**바 른 한 의 원**
바른치료 · 빠른치료
유경철(요셉) 신창숙(루시아)
T.043-642-8585
제천 중앙시장 1층 다동

**임마누엘 가톨릭결혼정보**
이 수산나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률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을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늦은 초혼·재혼 전문
T.02-757-3343
명동성당앞 태흥빌딩808호